어른 김장하는 어디에나 있다

교육의창

조재호
월계초 교사

동료 교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교 축제를 하고 수익금이 남았고, 이를 학급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담임교사는 사용처를 아이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피자를 사먹자", "치킨을 먹자"는 등의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아이들은 "그냥 현금으로 나누자"고 결정했습니다. 교사는 "그래, 그렇게 하자"고 말했지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참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마주한 느낌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사라지고, 계산만 정교해졌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미 오래 전 '현금지불관계'의 차가운 그물망 속에 들어갔습니다. 공정하게 나눈 현금으로 어떤 아이는 치킨을, 어떤 아이는 피자를, 어떤 아이는 게임머니로 소비하겠지요. 겉보기엔 모두의 욕구가 채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지금 우리가 처한 세계 전체가 이렇게 계산만 남는 세상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경제적으로는 무역분쟁 속에서 거대한 질서조차 발 밑에서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을사조약 100년이 되는 올해, 우리가 사는 공간과 관계 모두가 다시 흔들리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모든 단단한 것이 대기 속으로 녹아버리는" 이 시대, 김장하 '신드롬'이라 불리는 현상은 우리들의 내면 깊이 새겨진 인간적 욕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봅니다. 경남 진주시의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던 김장하는 하동 지역의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대가 없이 줍니다.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 훗날 사법시험을 합격합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을 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그 학생입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는 단순한 법률적 선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장하 '어른'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감당하기 힘든 불안 속에서, 누군가의 꾸준하고 성실한 실천이 남겨준 조용한 확신 말입니다.

김장하 어른이 쌓아온 부가 가난한 학생 문형배에게 전해졌고, 그는 그 선물을 품에 안은 채 묵묵히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훗날 그는 헌법재판관이 되었고, 2019년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고마워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나한테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아라'" 많은 이들이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래 인류는 타인에게 '주는 것', 그리고 '받는 것', '되갚는 것'으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그 흐름을 끊어내고, 모든 관계를 1:1의 현금지불로 환산하려 듭니다. 아이들이 각자 돈을 나누어 외로운 '소비'를 하는 장면 역시, 어쩌면 그 왜곡된 질서 속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 모습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김장하·문형배·탄핵 선고·한국 사회…로 이어지는 면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안도감이 바로 김장하 신드롬의 본질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그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김장하 '어른'을 추앙하면서도, "나는 돈이 없어서 기부를 못하는데 그 분은 참 위대한 분이다"라는 흐름은, 오히려 김장하 어른이 가리키는 '방향'을 놓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실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무슨 대단한 용기를 보인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법리에 따른 일상을 실천했듯, 자기의 일을 성실히 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는 '선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 중학생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베트남 엄마를 따라 한국에 온 지 3년째. 한국어 사용이 약간 미숙합니다. 그래서 보충학습을 받기로 합니다. 교사는 이 학생이 정말 대견하다고 생각되어 "너 정말 언어에 재능이 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어눌한 말투로 "매일매일 와야 해요?"라고 묻습니다. 그럼 혼자 오지 말고 "친구랑 와라"고 했더니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친구도 대견합니다. 매일 점심마다 간식을 얻어먹기 위해서만 친구를 따라오진 않았을 겁니다. 학생은 교사로부터 배움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사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기도 합니다. 교사는 어린 존재들이 주는 환대를 '현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학생의 얼굴에 김장하 선생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른 김장하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6일 오전(현지시간) 바티칸에서 거행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이 성 베드로 광장으로 운구되고 있다.

AP/뉴시스

이재명을 바라보는 광주 우민의 생각

서석대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선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26일 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세 번째 지역 순회를 호남에서 실시했다. 결과는 이 후보가 88%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경선에서 이 후보는 88.69%(17만 8090표)의 득표율을 기록해 7.41%(1만4889표)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동연 후보, 3.90%(7830표)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경수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1위와 2위는 표 차이를 논할 것 조차 없었다. 이에 지난 순회 경선 결과까지를 합산하면 이 후보는 89.04%로 1위, 김동연 후보가 6.54%로 김경수 후보가 4.42%로 각각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광주와 전남은 과연 이재명으로 굳었을까?

정치에서 결정된 판을 지켜보는 것 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잠시간 안심의 대가를 크게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이전 대선에도 사전 분위기는 압도했지만, 정작 본선에서는 광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비율이 두자리수를 넘었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민주당에 대한 짝사랑을 하던 광주·전남민들은 습관처럼 "죽어라고 밀어줘도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한 걸음도 벗어날수가 없다"고 한탄한다.

그래,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광주와 전남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부산의 2024년 예산은 17조1000여억원이었고 광주는 6조9000여억원이었다. 물론 두 지역의 인구수 등을 비교하면 같을수는 없겠지만, 광역시 연간 예산이 10조 인근도 못가는 것은 누구의 탓인가.

또 5·18 헌법전문 수록 이야기는 어떤가. 나온지 수년이 돼가는데 하기는 할 것인가? 당신들도 광주에 내려오면 보지 않는가. 광주 한복판에 버젓이 붙어있는 광주를 모독하는 현수막을. 언제까지 저것을 떼지도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내친김에 한마디 더하자. 광주광역시 도로를 새로 다 까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만지 아시는가? 무려 100년이다. 1㎞를 새로 까는데 1억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어서 매년 예산을 털고 털어서 도로를 조금씩 보수하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마음으로만 미안해 할텐가? 언제까지 짝사랑만 하라고 하는가?

88.69% 지지율이 지역 의원들이 잘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닌듯 한데. 이것이 혹여 빚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가? 진심으로 묻는다.

노병하 디지털콘텐츠 부장

社 說

광주·전남 현안 챙기는 대선 후보 돼야

민주당 이재명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4차 순회경선 현장에서 발표된 누적 득표율에서 합산 89.77%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에 해당하는 수치다. 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전남에서도 88.69%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이 후보는 "정권을 탈환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본선 승리를 위해선 구호를 넘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

광주·전남은 오랜 기간 민주당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기대와 달리 주요 숙원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했고,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은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역시 정치권의 공허한 약속으로만 남아 있다. 광주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 조성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 이들 과제는 단순한 지역 개발 이슈가 아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 소멸과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절박한 과제다. 수도권에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광주·전남의 공동화는 심화되고 있다. 청년들이 떠난 지역에서 산업 인프라를 아무리 조성해도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 지역 발전이 멈추는 순간,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도 함께 약해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이를 실천하려면 광주·전남 현안을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신선한 공약보다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숙원사업 해결이 우선이다. 이번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광주·전남 민심은 더 이상 민주당에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가 지역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묻는 무대가 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기대를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은 광주·전남을 살리는 일에서부터 증명돼야 한다.

골목식당 울리는 '노쇼 사기' 엄벌 처해야

4월에 집중 광주서만 31건

광주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침체로 하루하루 버티는 골목식당들을 겨냥해 공공기관을 사칭,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근 4개월 동안 광주에서만 38건, 피해액은 360만 원에서 6600만 원까지 다양하다. 특히 4월에만 31건이 집중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들은 군부대나 교도소, 소방본부 등을 사칭해 신뢰를 얻고, 도시락이나 음식을 주문한다. 이후 위조 공문서와 신분증을 들이밀며 전투식량, 방탄조끼 같은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고 사라진다. 결국 음식값은 물론 재료비, 인건비까지 업주 몫이 된다. 피해자들의 생계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골목식당들은 이미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 3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에게 대량 주문은 생존의 희망과도 같았다. 그러나 이 희망을 교묘히 악용해 절망으로 내모는 범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음식은 만들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소비재다. 피해를 입어도 법적 구제는 쉽지 않고,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다. 광주경찰은 서부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음식점들은 대량 주문 시 선결제나 예약금을 요구하고, 주문자의 소속을 반드시 공식 번호로 확인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피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긴급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쇼 사기는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니다. 서민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해 사회적 신뢰까지 뒤흔든 만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검찰과 법원은 단순 피해 금액이 아니라 '서민 생존권 침해'라는 본질을 중대하게 고려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범죄자들에게는 반드시 무거운 철퇴를 내려야 한다. 수사기관은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해야 하며, 골목식당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